

2017 년 8 월 20 일 “찾아오신 예수님(38) 영화롭게 하소서”(요 17:1-5)

<도입>

요 17 장은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제자들/세상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중보자란 다리역할 하는 존재로서 양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양쪽을 위해 감당해야 할 행위가 있는데 크리스찬 중보의 핵심은 먼저 기도입니다. 17 장을 단락별로:

- v.1-5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과 아버지)
- v.6-12 하나님께 하소서 (제자들을 위하여)
- v.13-19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하여)
- v.20-26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하소서(하나됨으로)(세상을)

[1] 서로를 영화롭게 하심(아들과 아버지를)

오늘 본문 안에 영화라는 단어가 5 회 출현.

1 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 예수님 인격, 목적, 목적을 이루는 방식과 열매가 밝혀지게(비추어지게).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심은 하나님 마스터플랜이 사랑과 선하심(속성)과 함께 드러나게 하심.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영화가 나타나길 간구하십니다. 늘 의식하셨던 중심입니다. 자신이 걸어야 할 영화의 길은 개인적 탁월함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영광에 이름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서로 존중하고 신실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념의 체계(belief system)**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에서 살아남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함입니다. 대다수의 자기 신념 체계는 예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해’ ‘이래야 돼’ ‘이 정도 도덕은 지켜야 해’ ‘~이 제일 싫어’ 등은 예수 말씀과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개개인의 신념 체계는 보수냐, 진보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사람들의 신념체계가 관계 중심적이지 않으면 슬픈 현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신념 체계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또는 호불호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서로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새 차원의 신념 체계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영화롭게 하는 것, 스승이 제자를, 제자가 스승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존중 외에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탕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새로운 복음의 생명 세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자의식

2 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라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생 –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의 4 차원 이상의 차원의 진리의 삶,

다스리는 권세 – (장악/조정하는 힘이 아님)

권세 =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

보이지 않는 진리로부터 발생하여 보이는 진리의 삶, 사회를 만드는 힘. = 선한 힘, 사랑의 힘. (국가의 권세, 부모의 권세, 스승의, 예술가의, 작가의, 과학자의 권세를 주신 것은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진리의 세계를 지으라고 하신 것, 그러나 99% 인간 이기심으로 오용/왜곡 했다.)

이 진리의 힘을 예수님처럼 올바르게 행사할 때 다스린다고 표현합니다. 즉, 다스리는 권세는 섬기는 힘입니다. 섬김이란 대상이 영생에 합당한 영화로운 존재로 회복하도록 희생하며 돕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하나님 나라의 품위를 지니도록(=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세로 다스리신 모습을 보면 빈천한 자들에게 다가가 치유/회복시키고, 함께 하심으로 royal people로서의 품위를 높여 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시고, 약하고 무기력하게 잡혀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품격을 높여 주시고 영생에 합당한 삶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3]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권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 둘이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생명의 품격을 입도록 도울 수 있으려면 진리를 만나 진리로부터 나오는 힘(권세)을 얻어야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왕노릇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살도록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분임을 믿고 옳드리면 진리는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의 본질(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본질 세계를 보고 감화되면 예수 권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중보자)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절에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 진리의 힘으로 세상을 섬기시는 분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면 보내신 분이 사랑이심을 알게 됩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일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하고 희생하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소명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참 중보자로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맺음> 우리는 예고 중심(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삶을 전환해 가야 합니다. 중보자의 삶의 목표(영화롭게)와 방식(다스리는 권세)을 날마다 익혀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기쁨입니다.

<나눔의 질문>

- 어떤 선교사가 사역지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한다면 그곳을 향하신 하나님 성품과 방식위에 그분 뜻이 나타나도록 애쓰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 예수님의 자의식과 자의식 안에서 행하신 삶을 말씀해 봅시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나의 삶은 하나님과 세상과 맺은 관계 속에서 영광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살핀 대로라면 어떻게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게서 제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채워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깊이 나누어 보십시오.